

러시아 연방법령 고찰을 통한 경호총국 소개

Introduction of the FSO Through the Examination of Russia's Federal Law

김창호, 오재환, 박준호
경기대 경호안전학과

Chang-Ho Kim(kch@kuic.kyonggi.ac.kr), Jae-Hwan Oh(pssojh@hanmail.net),
Jun-Ho Park(soojun8488@hanmail.net)

요약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 1013에 의해 해당 조직의 편성 및 지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창설과 경호총국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조직의 정보력과 교육훈련의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05년 말 경호총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과 최근 들어 잦은 언론자료 배포로 어둠속에 숨겨진 비밀조직에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경호처와 대표단 교환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 경호총국의 역사와 그 구조, 법적 지위 등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우리나라의 공경호의 발전을 위해 적용 가능한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중심어 : | 러시아 경호 | 경호총국 조직 | 경호총국 지위 | 공경호 |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position of FSO was systematically established under the Presidential Decree No. 1013 on 7 August 2004. Furthermore, the FSO has established a signal department, an intelligence department and an academy to enhance intelligence an training capabilities.

The FSO has been striving to unveil itself from a clandestine agency into a pivotal organization through the use of media and its website. It is in part that FSO has tried to deepen the understanding between PSS through personnel exchange in 2004~2005

Therefore, this study will examine the history, organization and legal position focusing on the related laws of FSO, an organization trying to adjust to the global change, and study whether this model may be applied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security in Korea.

■ keyword : | FSO | Public Security | Organization |

1. 서론

1948년 출범한 제1공화국 당시 대통령경호실은 '경무대 경찰서'에서 수행하였으며, 내각책임제 정부형

1. 2008년 대통령실 경호처로 전환되었고, "대통령경호실법"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태를 채택한 제2공화국 시대에는 국무총리의 지위가 크게 강화됨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여 오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되고 서울시경 소속의 '청와대 경찰관 파견대'에서 대통령경호를 담당하였다. 그 후 1961년 5.16 군사혁명 이후 중앙정보부 소속의 '국가재건최고

회의 의장 경호대'가 창설되었으며, 1963년 12월 제5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법률 제1507호인 대통령 경호실법에 근거하여 독립된 정부기구인 '대통령 경호실'이 창설되었다[1].

경호처 창설이후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미수 사건, 1974년 박정희 대통령 저격 미수사건,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등의 위기상황과 더불어 경호처는 기능과 조직구조가 개편과 더불어 발전하게 된다. 경호처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과거를 교훈삼아 현재보다 더 나은 조직의 발전을 위해 경주하였고, 특히 최근 국민의 정부 이후로 2000년 ASEM 및 2005년 APEC 등 세계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세계 최고의 경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경호처는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킹(benchmarking) 대상이었던 미(美) 대통령 경호실(Secret Service)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각국 경호기관의 시스템 및 그 활동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활용하여 경호처의 목표인 대통령의 절대 안전과 대(對)국민 불편해소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 임무의 성격 상 외국 기관과의 잦은 접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경호처는 당연한 선택 요소라 생각되며, 특히나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에 있어 다른 유럽 지역 국가보다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주변 4강(미, 러, 중, 일) 경호기관 연구와 이해는 경호처의 발전 뿐 아니라 그 임무 완수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최근 러시아 경호총국은 2004년과 2005년에 대한민국 경호처와 대표단 교환²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노력해 왔다.

최근의 러시아 경호총국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가장 특이할만한 점으로는 2004년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창설과 경호총국 아카데미 신설을 들 수 있다. 이는 단순

히 조직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며, 이 변화의 이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전 대통령의 정치적 구상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으나, 전 세계적으로 정보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전의 비밀조직 이미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 말 경호총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 점과 최근 들어 잦은 언론자료 배포로 어둠속에 숨겨진 비밀조직에서 국가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전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하는 러시아 경호총국의 역사와 그 구조, 법적 지위 등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이러한 모델이 경호처의 발전을 위해 적용 가능한가를 살펴보고 하겠다.

본 연구는 2003년 3월 11일자 대통령령(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조정의 현실화조치를 위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과 2004년 8월 7일자 러시아연방 대통령령(러시아연방 경호총국 편성 및 지위) 법령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조직 편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호총국 홈페이지 및 기타 선행 연구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의 법적 지위

러시아 경호총국의 법적 지위는 200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 1013에 의해 확인된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편성 및 지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경호총국(이하 경호총국)은 연방정부의 행정부 소속으로 국가 경호³ 분야와 연방정부의 각 기관 및 각 연방주체⁴내의 국가기관, 연방 및 기타 국가 기관에게 위임된 대통령 및 정부기관에 대한 특수통신과 정보 분야 내에서의 국가정책 실행, 국가의 안녕 도

2. 2004년 11월 러시아 경호총국 차장이 경호처를 방문한데 이어 한-러 경호기관 신뢰·협력관계 구축하기위해 경호처 차장이 2005년 6월 1일~6일까지 러시아 연방 경호총국을 방문, 양국 경호기관 간 협력 관계를 다지며 상호교류의 토대를 쌓고 돌아왔다.(자료:경호처 홈페이지 공지/보도자료)

3. 국가기관에 의해 지정된 경호 대상에 대해 국가 기관이 실시하는 경호업무

4.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각 공화국

모,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경호총국의 지도부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경호총국은 러시아연방 국가안전 보장기구에 속한다. 경호총국은 군 기구인 동시에 국가 민간기관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법인으로 인정되어 실질적 명칭과 조건부 명칭을 소유할 수 있고, 경호총국의 명칭과 함께 러시아연방의 휘장이 들어간 인쇄물을 출판할 수 있으며, 러시아연방의 법률에 합당한 은행계좌와 서식용지, 도장 등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1996년 5월 27일 러시아 연방법 No. 57 '국가경호에 대하여'에 의하면 국가 경호 대상에 대한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총국은 법적, 제도적, 기술적 조치 이외에 자체 수사 및 심리, 심문 등의 조치를 통하여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03년 3월 11일자 대통령령 No. 308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조정의 현실화조치를 위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경호총국 산하에 기존의 연방정부 통신 및 정보국이 편입되어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이 신설되었다.

이후 2004년 8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는데, 이에 따라 특수통신 및 정보국은 경호총국 산하기관에서 경호총국 조직 내로 편입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실시되었다.

- 러시아 연방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 관리국은 러시아 경호총국 특수정보 및 통신 관리국으로 한다.
- 러시아 경호총국장과 차장은 그 지위와 보수 및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에 있어 연방정부 장관, 차장과 동일시한다.
-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은 3명의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차장을 둔다.

또한 2004년 확인된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에 의하여 경호총국 중앙기관에 근무하는 군 종사자의 수는 최대 600명으로 정해졌으며, 이 외 경호총국의 지위도 확립되었다.

2.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의 임무

2004년 8월 7일자 대통령령 No. 1013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편성에 대하여'에서 경호총국의 임무를 명시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 경호의 대상에 대한 생명의 위협을 예방하고 발견하여 이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 국가 경호 대상과 현재 국가 경호를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불법적 기도를 사전에 예단하고 발견하여 저지한다.
- 국가 경호 대상과 현재 국가 경호를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한 위법적 침해 의도를 사전에 예단하고 발견하여 저지한다.
- 국가 경호의 대상이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 행위 및 기타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단하고 발견하여 저지한다.
- 경호대상을 보호한다.
-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서 경호총국의 모든 권한을 이용한다.
- 국가 기관에게 허용되는 특수통신 및 정보를 항상 시키고 그 안전을 보장하며, 이에 대한 사용을 보장한다.
- 러시아 연방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실행하며,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보호와 기술적 방어를 실시한다.
- 러시아연방의 법적 정보화 및 이 분야에서 실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조정업무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을 실현한다.
- 국가 기관에 대한 정보기술 및 정보분석의 보장, 정보통신 시스템과 정보통신 센터에 개한 기술적 서비스, 전시 및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국가 통제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 경호총국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한다.
- 국가 경호의 대상은 1996년 5월 27일자 국가 경호에 대한 연방법 57조 3항5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5. 1996년 5월 27일자 연방법 <국가 경호에 대하여>는 2004년 8월 7일자 대통령령과 더불어 당해 12월 29일에 그 내용이 제(再)확증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6년 연방법을 명시하되 그 내용에 있어

이에 따르면 국가 경호의 대상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 러시아 연방 국가기관 내 요직을 점유하고 있는 자,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경호의 범주 안에 위치하고 있는 연방 및 국가기관장, 러시아연방 내에 체류 중인 외국 국가원수 및 정부 수장, 기타 요인으로 정해져 있다.

또한 이들 국가경호 대상에 대하여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경호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 개인경호 및 통신, 교통 서비스와 개인 신변의 위협에 대한 사전 정보의 제공
- 국가 안전보장기구의 전권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적법한 수사 및 심리활동
- 경호임무의 실시와 더불어 국가경호 대상이 지속적,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장소에 대한 사회질서의 유지

III. 경호총국 역사 및 조직구조

1. 러시아 경호총국 역사

알렉산드르 2세의 암살 직후 러시아의 지도부 사이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모든 힘과 조치를 강화하고, 황제와 그의 가족에 대한 테러 행위를 근절시키고, 궁정에 대한 보호 및 수많은 국내의 행사에서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진 단일한 조직체계를 구성해야 한다는 동일한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1881년 11월 3일에 창설된 것이 황실 경호대이다. 황실 경호대의 예하로 1917년 3월까지 근위보병중대(이후 황실경호대 보병연대), 황실호위대, 궁정경찰팀(이후 비밀조직원 궁정경찰대로 개편), 철도 감독국(이후 제1철도연대로 개편), 궁정 정예중대(이후 궁정 정예대로 개편) 등이 편성되었다. 1917년 혁명 이전까지 국가경호 시스템은 황제와 그 가족의 안전보호라는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

소비에트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전(全) 러시아 중앙

행정위원회의 지도자들과 소비에트 대표자들의 경호를 책임질 새로운 국가 안전 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나, 곧 시작된 시민전쟁 기간 동안 소비에트 지도부의 전선 시찰시 일련의 경호임무는 붉은 군대에서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비에트 정권의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반복되는 테러행위는 러시아 반혁명 태업단속 비상위원회 내의 경호 시스템 조성을 야기하였다. 1920년 11월 26일 러시아 반혁명 태업단속 비상위원회 간부회가 형성되면서 국가 통치부의 경호임무를 수행할 특수부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1930년 이 특수부서는 해체되었고 이 임무는 합동국가보안부 산하 부서로 이전되게 되었다.

1934년에는 내무 인민위원부(현 내무부)가 신설되어 해체된 합동국가보안부의 산하 기관을 흡수하였으며, 동시에 국가 지도부의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통합하게 된다. 당시 국가 통수권자 및 외교단, 외국사절에 대한 경호업무 및 공개행사(퍼레이드, 전시회, 집회 등)에서의 질서유지 업무는 소연방 내무 인민위원부 국가보안국 통제실 산하 작전과에서 실시하였다.

이후 1936년 11월 28일 소연방 내무 인민위원부 국가보안국 내 독자적 경호과가 설치되어 국가 위정자들의 출장 및 휴가시의 안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1941년 2월 재창설된 소연방 국가보안 인민위원부 산하에 독자적인 제1처가 창설되었으나, 곧 독일과의 전쟁(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됨에 따라 소연방 연합 내무 인민위원부 산하로 소속되게 되었다. 이후 전쟁기간 중 1943년 4월 소연방 내무 인민위원부 경호 제6과가 창설되었다.

1946년 새로운 국가보안부 산하에 두 개의 경호부서가 창설되게 되고, 1953년 3월 14일 소연방 국가안전 인민위원부 경호국은 당 수뇌부와 정부 요인 보호를 위해 소연방 내무부 산하 제9처로 재편되나, 1954년 3월 소연방 국가안전위원회가 창설되면서 소연방 내무부 산하 제9처를 흡수하게 되어 1990년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1990~1991년 동안에 소연방 대통령 경호국이 창설되어 국가안전위원회 제9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서는 개정된 이후의 대통령령을 참고하였다.

1991년 러시아의 모든 경호기관은 러시아연방 국가 경호처로 통합하게 된다.

1993~1996년 동안 국가 경호처와는 다른 독자적 기관으로서 러시아연방 대통령 안전국이 창설되었다. 1996년 6월 러시아연방 대통령 안전국은 러시아연방 경호총국과 통합되게 된다.

1996년 5월 27일 “국가경호에 대하여”라는 러시아연방법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이 창설되었고, 1996년 8월 2일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의 편성 및 지위가 확립되었다.

2003년 3월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산하에 특수통신 및 정보국이 창설되었고, 2004년부터는 산하기관이 아닌 정식 부서로 편입하게 되었다.

2. 러시아 경호총국의 조직구조

2.1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러시아 경호총국 홈페이지(www.fso.ru)에서 참고한 세부 조직 편성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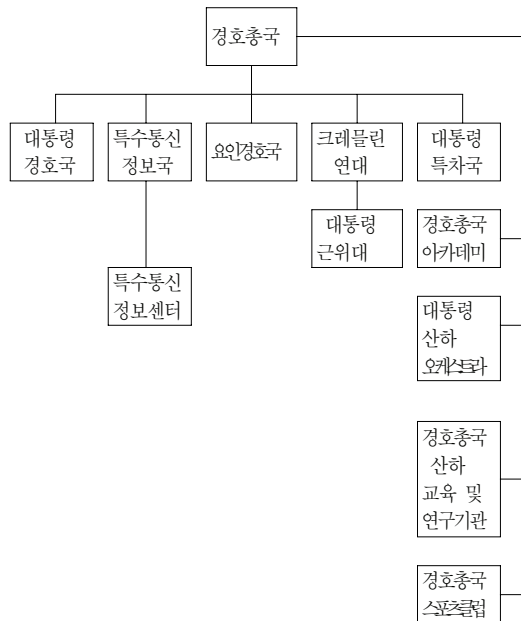


그림 1.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조직표

2.2 대통령 경호국

대통령 경호국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85년 국가안전부 제9처 산하에 모스크바 당위원회 제1비서 보리스 엘친을 위해 3인의 개인경호팀에서 그 활동이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할 것이다.

1989년 소연방 최고회의 건설 및 건축분야 대표직을 맡게 된 후에도 보리스 엘친은 국가경호에서 제공하는 모든 경호를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경호원이었던 알렉산드르 코르좌코프의 ‘니바’ 승용차를 타고 활동하였다. 1989년 9월 28일 보리스 엘친에 대한 위해시도가 있는 후 엘친은 자신의 전(前)경호원들로 경호팀을 구성했고, 1990년 러시아 공화국 최고회의 대표직에 당선된 후 이를 주축으로 알렉산드르 코르좌코프를 수장으로 하는 최고회의 대표 안전국을 구성했다.

1991년 6월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에 당선된 후, 창설 당시 대통령 경호국은 러시아연방 경호국 산하 기관이었으나 1993년 9월 독립적 기구로 분리된다. 초창기 대통령 경호국의 임무는 양성적으로는 대통령의 안전 보장임무를 띠고 있었으나 음성적으로는 대통령의 정치자금 계좌 관리 및 정적(政敵) 제거 등의 맡기도 했다.

2000년 4월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외에 독립적인 대통령 경호국의 창설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경호총국 산하 대통령 경호국이 편성되었으며 그 임무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및 직계 가족의 안전보장이 되었다.

2.3 특수통신 정보국

경호총국 특수통신 및 정보국은 2003년 3월 11일 연방 정부 특수통신 및 정보국을 간으로 한 구조조정에 의해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산하 기관으로 창설되었다. 구조조정 당시 러시아연방 안전보장국으로 이전한 두 기관을 제외한 모든 주요기관들이 경호총국으로 편입되었다.

당시의 대통령령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산하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편성에 대하여’에 의하여 특수통신 및 정보국은 연방정부의 각 기관 및 각 연방주체내의 국가 기관, 연방 및 기타 국가 기관에게 위임된 대통령 및 정부기관에 대한 특수통신과 정보 분야 내에서의 국가정책 실행, 국가의 안녕 도모, 조정과 통제의 기능을 담당

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2.4 크레믈린 연대

대통령 크레믈린 연대의 주된 임무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안전을 보장하며 크레믈린 내의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대통령 연대는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산하 기관으로 특수기관의 지위를 가지며 연대의 최고 명령권자인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다.

대통령 연대의 탄생은 1936년 4월 8일이며, 당시 명령 제 122호에 의하여 모스크바 특수 수비연대는 특수연대로 재편성되게 된다. 부대의 날은 5월 7일로 지명되었으며, 매년 이 날에 크레믈린 연대는 러시아연방 대통령에게 사열을 받는다.

2000년 5월 7일 대통령 연대는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 참여하였고, 이 외에 2001년 5월 7일 대통령 연대 창설 65주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연방 전 대통령의 사열이 크레믈린 사원 광장에서 실시되었다.

2.5 대통령 근위대

대통령 근위대는 크레믈린 내에서 의장행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연대의 예하부대이다. 이전의 의장행사는 크레믈린 내 '사원광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했을 뿐더러 관람 인원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크레믈린 연대의 70주년 기념일인 2006년 5월 7일을 기하여 이 행사는 사원광장에 크레믈린 붉은 광장으로 행사장을 이동하였으며, 이후 매주 토요일 붉은 광장을 통제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2.6 대통령 특차국

러시아 대통령의 이동에 관한 업무는 일명 끈이라 불리는 특차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연방법 '국가경호에 대하여'에 따라 대통령 특차국은 러시아연방 대통령, 정부 대표, 양원 의장, 전(前) 소연방 대통령과 러시아 대통령 및 러시아에 방문 중인 외국 지도자의 이동에 대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러시아 대통령의 외국방문 시에

도 특차국의 자동차가 이용되고 있다.

특차국은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소속이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운전사들의 훈련은 경호총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에 의해 훈련을 받으며, 이들도 경호총국 소속인 만큼 일반 경호관들과 마찬가지로 경호대상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특차국은 1906년 니콜라이 2세에 의해 궁정 내 국가 차고가 설치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황제 차고는 페트로그라드(현 페테르스부르크)에 위치해 있었으며, 보유 차량은 최초 10대에서 몇 년 후 2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후 황제 차고 산하에 운전자 학교가 설치되었고, 페트로그라드에는 차고 건물이 건설 되었다.

1917년 초 황제의 개인 차고는 임시 정부의 교통지가 되었고, 10월 혁명 이후에는 소비에트 정부 소속이 되었다. 1917년 11월 당시 이곳에는 46대의 차량이 보유되어 있었다.

현재 특차국은 메르세데스(Mercedes), 시보레(Chevrolet), 아우디(Audi), 포드(Ford), 질(ЖИЛ)시리즈의 차량으로 구성되어있다. 모터케이드 이동 시 이용되는 모터사이클은 BMW와 우랄(Урал)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특차국의 차량 총 보유 대수는 100대 정도이다.

2.7 경호총국 아카데미

2000년 3월 30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지시 No. 94 및 2000년 4월 12일 러시아연방 정부 결정 No. 336에 따라 러시아연방 특수통신 및 정보분야, 통신 및 정보보호 기술 정보분야의 기술 향상과 학문적 기술연구의 기반 활성화를 위해 정부통신 군사대학이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정부통신 및 정보국 아카데미로 재편된다.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정부통신 및 정보국 아카데미의 전문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정류시스템 및 통신망
- 다망(多陷) 전자통신시스템
- 무선연락,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전 방송
- 전자통신 시스템 정보보안
- 정보 및 통제시스템 자동화
- 법률학

아카데미 졸업과 동시에 중위계급에 임명되며, 훈장

과 각 전문분야에 대한 엔지니어 증명서 및 전문교육 졸업장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5년이며 아카데미에서의 교육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받는다.

2004년 러시아연방 대통령 산하 정부통신 및 정보국 아카데미는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아카데미로 재편되었으며,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아카데미는 국가교육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고급 전문교육을 받은 장교와 고급 기술자격을 가진 연구인력의 배출
- 전문 장교 재교육 및 장교 기술자격 향상
- 학문연구 기반 조성 및 개설
- 젊은이들의 군사관련 업무에 대한 방향제시와 이들의 아카데미 지원 대비

2.8 대통령 직속 오케스트라

대통령 직속 오케스트라는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매우 필요한 기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오케스트라는 1938년 11월 11일 모스크바 크레믈린 사령부 예하 오케스트라로 창설되었다. 여러 해 동안 오케스트라는 모스크바 크레믈린 사령부 예하 오케스트라, 모스크바 크레믈린사령부 모범 오케스트라, 크레믈린 오케스트라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대통령 직속 오케스트라'라는 명칭은 1993년 11월 11일 재편과 동시에 수여받게 되었다.

60년 이상의 역사동안 오케스트라는 많은 지휘자들, 여러 장르의 음악인들과 같이 활동하였으며, 오케스트라의 재편도 여러 실시되었다. 그럼에도 오케스트라는 국가 주요 행사 외 많은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활동 및 녹음 활동도 병행하였으며 유명 지휘자 및 연주자의 콘서트 녹화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2.9 경호총국 스포츠클럽

2006년 2월 26일 러시아연방 정부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내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스포츠클럽이 창설되었다. 러시아연방 경호총국 스포츠클럽은 경호총국 내 직원들의 건강유지 및 임무수행의 기반을 마련할 뿐 아니라 상위 클래스의 스포츠맨을 발굴하여

개인 및 단체 국제 경기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호총국 스포츠클럽의 설치 기반이 된 정부 명령은 2006년 2월 26일자 연방정부 명령 No. 248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의 법적 지위 및 임무 그리고 구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경호총국의 역사와 현재 속에서 가장 특이할 만하다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는 최근 통신 및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부각(浮刻)시켰다는 점과, 둘째로 러시아연방 경호총국의 활동 영역이 대통령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전(全)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를 실시하며 필요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근의 경호활동에 있어서 정보활동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최근 정보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부지불식(不知不識)간에 경호 대상에 대한 정보가 새어나가고, 결과적으로는 경호업무에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호는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다.

더군다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호총국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임무 중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경호에 대한 위협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은 가장 이상적인 공(共)경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제한된 예가 될 수는 있으나 블라지미르 푸틴 전 대통령에 대한 세 차례의 위해 음모가 모두 사전 정보활동에 의해 와해되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겠다.

전(全)국가 요인에 대한 경호활동은 특수통신 및 정보국의 통합적 업무와 더불어 평시(平時) 경호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경호업무의 신속성과 통일성에 있어 주목할 만하다.

위의 본문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호총국은 국가 경호의 활동영역 안에 포함된 모든 요인 및 시설에 대하여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공(共)경호활동은 어느 한 조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기적인 조직체의

조화로운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각 기관의 활동을 조정하는 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가능한 그 임무에 관한 활동영역은 최대한 포괄하는 것이 임무수행의 신속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 신속성과 통일성은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참고할 만한 것은 사전 정보 수집에 의한 위험기도 발견 시 자체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문제해결의 급박함은 차치하고라도 그 심각성을 더 잘 인식하고 있는 국가경호 기관 자체에서 대처한다면 정보유출 방지, 문제해결의 신속성, 경험 축적을 통한 재발 방지 등의 여러 면에서 경호업무의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이 연구가 국가 중요 기관에 대한 연구이고 더군다나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상적인 연구가 되었다는 점이다. 보다 깊게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역사와 구조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활동 모습을 통한 실제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는 더 많은 상호교류 및 행사 간 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정동환, 각국 경호제도 비교분석과 21세기형 선진 경호제도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2] 러시아 연방법 No.57<국가경호에 대하여>
- [3]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308<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에 대한 국가조정의 현실화조치>
- [4]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No.1013<러시아연방 경호총국에 대하여>
- [5] 러시아 경호총국 홈페이지(<http://www.fso.ru>)
- [6] 경호처홈페이지
(<http://www.pss.go.kr/pss/index.jsp>)

저 자 소 개

김 창 호(Chang-Ho Kim)

정회원



- 1975년 : 한양대 체육학 학사
- 1985년 :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교 체육학 석사
- 1997년 : 한양대 이학박사
- 1999~현재 : 경기대 경호안전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호발달사, 민간경비 조직관리, 경호무도

오 재 환(Jae-Whan Oh)

정회원



- 2001년 ~ 현재 :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관
- 2010년 8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박사 수료

<관심분야> : 민간경비, 교육훈련, 공경호

박 준 호(Jun-Ho Park)

정회원



- 2005년 : 경희대 스포츠외교석사
- 2010년 8월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박사 수료
- 2006년 ~ 현재 : 호원대 태권도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태권도, 경호무도, 민간경비